

## 다시 보는 5.3인천항쟁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함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작사: 작곡 인치환

Em Bm Em D B7

기 션 바깥 이 불 - 어오시 어 마 니 의 노 물 이

Em EmD A/C# C Am7 B7

기 술 아 에 시 무 처 오 는 갈 라 진 이 세 상 에

Em Bm Em D G E7/G#

중 의 노 이 주 - 인 되 는 것 세 상 과 유 무 하 여

Am Em C B7 Em

시 파 립 개 락 물 들 어 도 감 들 지 어 기 리 라

G D Em C D7 G E7/G#

술 아 술 아 푸 르 른 술 아 닷 바 람 에 달 지 마 - 라

Am D B7 Em C B7 Em

황 상 이 라 바 기 무 의 곳 살 아 서 만 나 리 라

# 다시 보는 5·30인민항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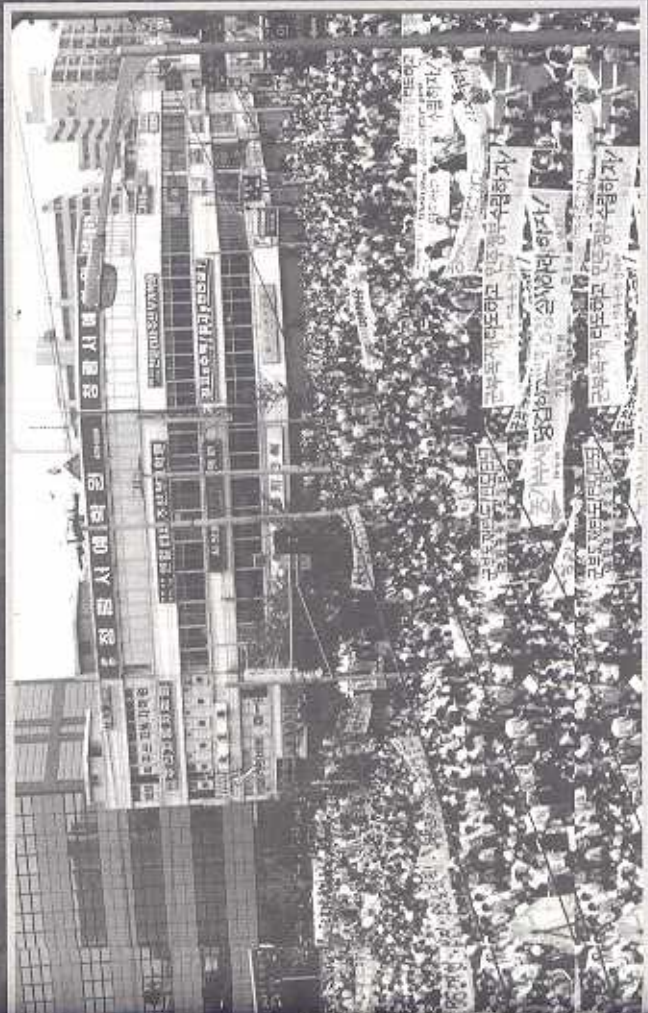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n Democracy Foundation  
www.kdemocracy.or.kr

# 5 · 3 인천항쟁

## 5 · 3 인천항쟁이란?

1986년 5월 3일 인천 남구 우안 사거리 일대에서 80년 5월 광주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이 날의 시위로 경찰 191명이 부상당하고 민주정의당 지구당사가 불타는 등 총 1억 6천33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 날의 시위를 좌경 용공 세력에 의한 소지서인 체제 진부 기도로 단정하고 형법 115조 소용 죄를 적용하여 129명을 구속하고 60여명을 시명 수배하였다. 그러나 이 날의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이 시위가 80년 5월 진두환 일당에게 배

앗긴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민주화 시위이며, 폭력은 시위대가 아니라 경찰이 먼저 행사하여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날의 시위 이후 진두환 정권은 소위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87년 6월 29일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할 때까지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이 날의 시위를 흔히 5·3시테 또는 5·3 인천항쟁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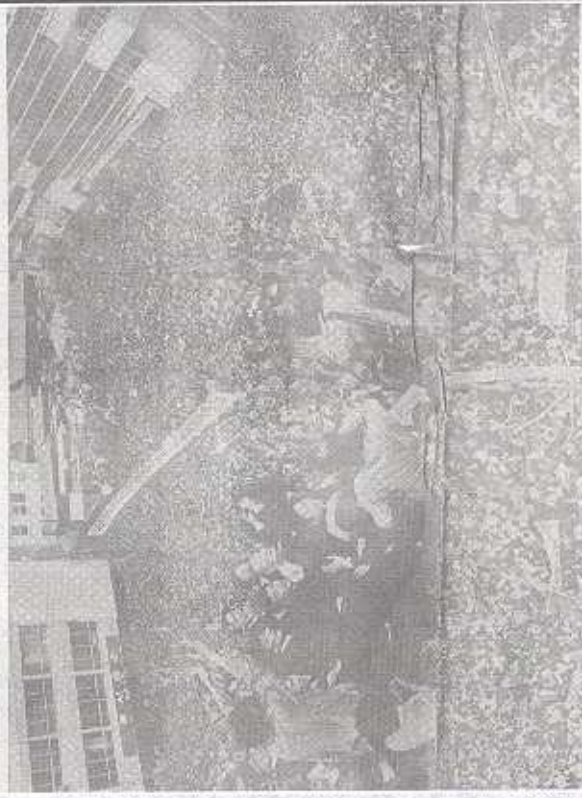
1986년 대한민국은...

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진두한 일당의 군사쿠데타에 맞서 싸웠다. 희생당한 영령들은 폭도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 채 구천을 헤매고 있었다. 국민은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겨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다. 기본적인 인권은 무시되었고 고문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은 정권과 악덕 자본가의 수단 속에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세상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세력의 기운은 서서히 그러먼 시도 점점 빠르게 번져 가고 있었다.

진두한 일당에 대한 분노가 안으로 응어리져만 가면 83년 9월 일단의 청년들이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김근태)을 결성하고 진두한 일당에 대한 투쟁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이어 85년 3월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국적인 민주화운동 조직으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외장 문익환)이 출범하였고,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생을 부활하여 진두한 일당의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85년 5월에는 구로 지역에서 대우어패럴 등 7개 사업장이 인대 파업을 벌여 이제 노동자들도 펼쳐 일어났음을 보여 주었다.

85년 2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이 승리하면서 정국은 직선제 개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평화적인 개헌 서명운동까지 탄압하던 진두한 일당은 미국까지 서명운동에 대한 탄압은 문체가 있다고 지적하자 서명운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신민당의 개헌추진지부 현판식 대회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움츠려 들었던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86년 3월 30일 광주에서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80년 이후 이후 최초로 금남로에 모여 천두환정권의 퇴진과 직선제 개헌을 외쳤다. 이후 대구, 대전, 광주 개헌추진지부 현판식 대회장에 계속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면서 5월 3일로 예정된 인천 현판식 대회는 정국의 초점이 되었다.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에 이어 仁川에 상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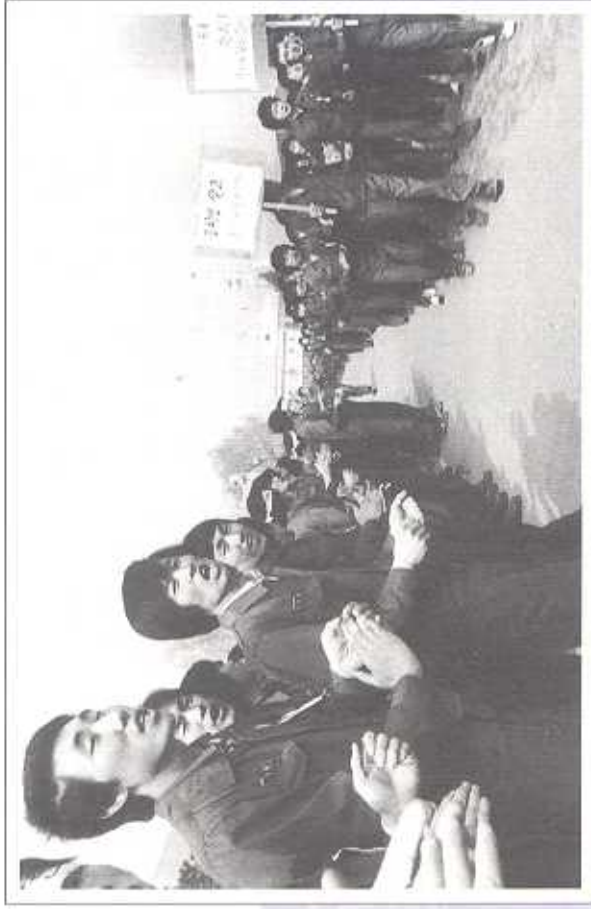
○ 人山人海 / 仁川 3000 餘人 參加 民主 運動 大會, 參加 者 甚 多, 參加 者 甚 多, 參加 者 甚 多.

## 1986년 인천에서는...

84년 11월 19일 전국적인 호름에 발맞추어 인천에서도 인천지역사회운동 연합(이하 인사연, 의장 제정구)이 출범하였다. 인천 지역의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한 인사연은 기쁨리, 개신교까지 망라한 인천지역 민주세력의 구심체였다. 인사연은 나라의 민주화는 물론 당시 우리나라 유수의 공업지대였던 인천의 특정 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1970년대 후반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금자탑을 이루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인천의 노동자들도 80년 패배의 아픔을 덜고 일어나 84년 11월 인천지역노동자부지협의회(의장 양승조)를 창립하여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회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인천지역에서는 84년부터 노동자들의 피업과 시위가 빈발하기 시작했다. 85년 4월에 발생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피업 농성은 대한민국 공지의 대공장에서 발생한 피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70년대와 달리 긴장한 남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피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88년 봄 인사연을 위시하여 학생, 노동자 등 인천의 민주세력은 광주를 시발로 하여 신민당의 천민식 대회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5월 8일 인천에서 열기로 한 신민당의 개헌추진지구 현판식 대회는 수도권에서의 집회라는 점에서 그리고 인천이 대규모 공업지대라는 점에서 온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인사연은 민통련 및 그 산하 단체와 인대하여 5월 8일의 인천 대회를 이 나라 민주화운동의 일대 정기로 만들기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기울여 준비에 착수하였다.



86년 4월 대우자동차 피업농성

## 민주세력간의 입장의 차이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전두환 일당에 의한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은 민주세력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다. 그 기억이 너무도 끔찍했기에 이제까지의 운동으로는 안 되겠다는 치절한 자기반성이 뒤를 이었다. 그 결과 민주세력 내부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민주세력은 미국이 80년 5월 광주 학살극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고 믿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전두환 일당 단독으로 그러한 대 학살극을 지행할 수는 없었다. 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에 대한 적개심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발전했고 반미운동이 꽃을 피듯 번져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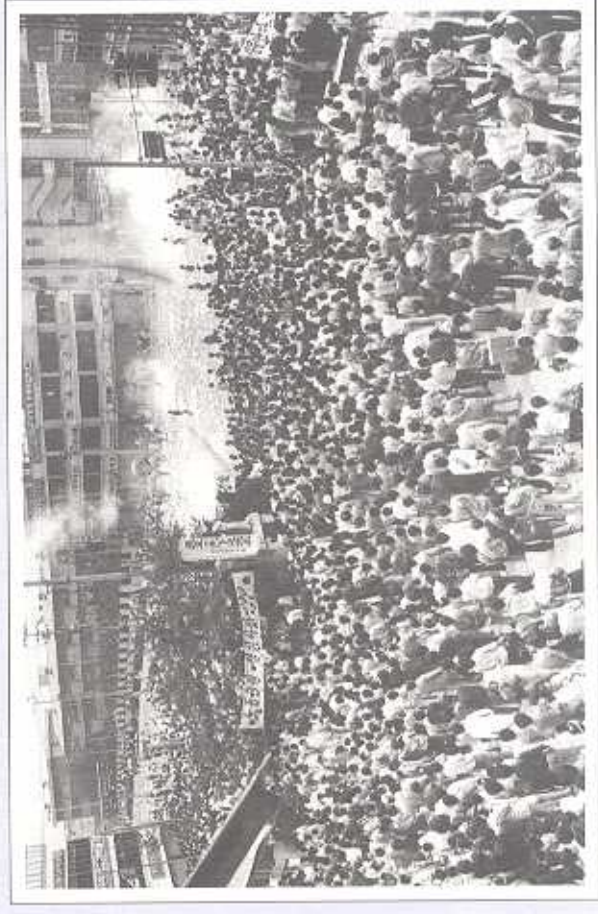
두 번째는 평화적인 운동 방식에 대한 회의였다.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대검을 휘두르고 총을 난사한 폭력정권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지배적이 되어갔다. 전두환 정권의 아반적인 고문도 이러한 인식을 부추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학생, 노동자들은 전두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라면 투신, 분신자살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 진전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제도정치권 안에서의 민주화를 모색해 온 김대중, 김영삼을 필두로 한 신민당 세력을 당혹케 만들었다. 그들은 학생,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급기야 86년 4월 29일 김영삼, 김대중은 학생, 노동자들에게 반미, 용공, 폭력 투쟁을 사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4월 30일 전두환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 개헌도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민통권을 위시한 민주세력은 이 일련의 과정이 신민당이 전두환정권과 아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학생, 노동자들 사이에서 전두환 정권과 아담하리 하고 있는 신민당을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

## 5월 3일 인천 주안 시민회관 앞

날씨는 초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맑고 화창했다. 신민당 개헌추진지구 현판식 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인천 남구 주안 사거리 시민회관 앞은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외에는 오전까지만 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서 있는 사복형사들의 차가운 눈빛과 그들을 불안한 듯 훑듯 훑듯 바라보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종종걸음에서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러한 긴장감은 12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시민회관 건너편 주안 1동 성당에서 플래카드를 앞세운 일련의 시위대가 나오면서 큰 깨어지고 말았다. 인사연과 민통권을 추축으로 한 시위대였다. 그들은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점거한 채 신민당의 행사와는 달라도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직선제 개헌이 관철될 때까지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사전에 주안 1동 성당에 집결하여 각종 시위용품을 제작한 그들이 이제 미리 계획한 대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86년 5월 3일 주안 시민회관 앞에 모인 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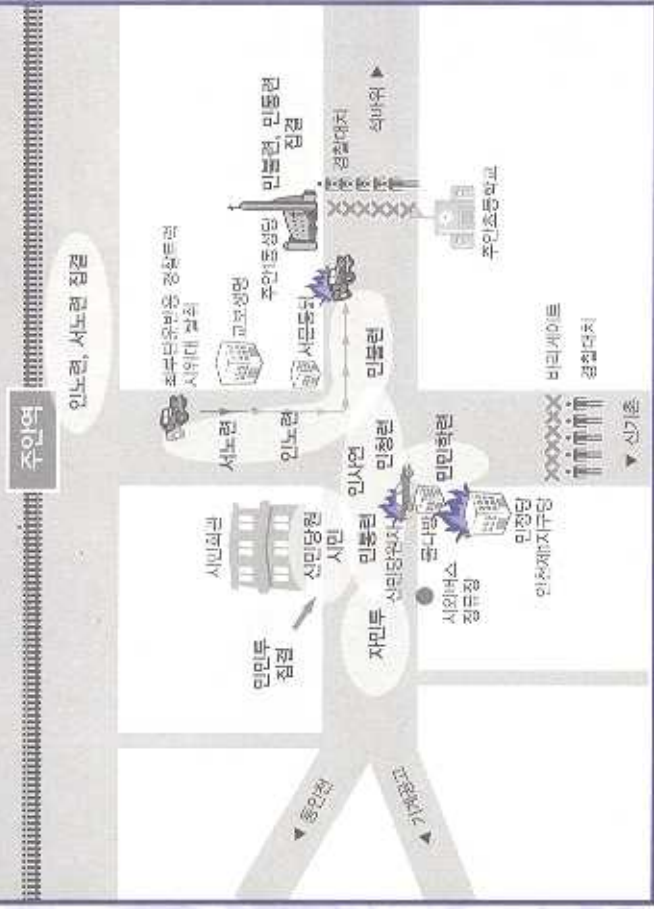
인사연 시위대가 나오자마자 시민회관 앞 사거리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 날의 민주화투쟁에 동참하고자 수도권 각지에서 모여는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경찰의 눈을 피해 있다가 모두 모여든 것이다. 그리고 각자 사거리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유인물들을 뿌려대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수도권 일대 민주세력의 모든 그룹들이 총출동한 이 날의 시위는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인사연과 민중면을 중심으로 한 집단은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광주학살 책임지고 진두환은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사죄하라!” 등, 신임 강요하는 재벌정권 타도 하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노동운동연합과 인신지역노동자연맹은 일천만 노동자의 요구에 응동하는 신민당의 개헌 생색을 믿지 말 것을 주장하며, “노동자 농민 피담 찌는 미국놈을 몰아내라! 노동자가 주인되는 심민헌법 쟁취하자!”고 하였다. 4월 28일 “반진반핵 양키고춤, 비제의 용병교육 전방임수 결사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김세진, 이세호 열사의 죽음을 지극반은 학생들은 미제국주역의 진두환이 물러날 것을 주장하며 도처에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이들 간에 통일된 대오는 형성되지 않았다.

대외 개최 예정 시각인 2시가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시민회관 앞 사거리는 시위대의 최루탄 인기로 가득 차 신민당의 현관식대회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사태를 수수방관하였다. 시위대의 기두 진출단을 최루탄을 쏘며 진압할 뿐 시민들의 진입을 통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시위가 더 과격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듯했다. 1시가 조금 지나서 무렵 주안 사거리에 있던 민정당 지구당시에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 길거리에는 최루탄 분말과 깨진 보도블록, 유인물이 가득 깔려 있었다. 김영삼, 이민우 등 신민당 지도부는 실식할 것 같은 최루탄 가스 때문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진두환 정권과의 타협을 비난하는 시위대의 위세에 질려 시민회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신민당의 연관식 대회는 이렇게 무산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흥분하기 시작한 시위대는 제물포 방면으로의 진출을

### 5·3 인천항쟁 시위 상황도



시도했다. 이미 시민회관 앞 사거리는 최루탄 가스 때문에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5시쯤부터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이제까지 수수방관하던 태도를 바꿔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하며 공방을 휘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시민들을 인행하였다. 인천을 해방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시위대의 기세는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시민회관 앞 사거리는 경찰이 장악하였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됐던 주안 역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처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인천 시내 몇몇 군데서 작은 기습 시위가 일어나긴 했으나 더 이상의 특별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 이어지는 탄압

선두환 정권은 국민의 민주화 열기에 밀려 수세로 물린 정국을 신민당의 5·3 인천 대회를 계기로 일거에 반전시키고자 회색했다. 허려고만 했다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시위를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도록 수수방관한 것은 민주세력을 좌경 폭력 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한 계산된 음모였다. 5월 3일 저녁부터 KBS를 비롯한 아용 방송들은 화염에 쌓인 민정당 지구당사와 거리에 가득한 최루탄 분말, 깨진 보도블록 등을 방송하며 5·3 시위를 폭력 진동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일부 시위대의 반미 주장 등을 문제 삼아 5·3 시위를 좌경 용공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 기도로 규정했다.

이어 대대적인 검거선봉이 불어 닦았다. 이미 5월 2일 저녁부터 서울노동 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되고 있었다. 검찰은 5·3 안전 시위를 좌경 용공 세력에 의해 경장 추산으로 191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민정당 인천 계1지구당사와 경찰 차량 3대가 불타는 등 도합 1억 6천33만인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소요 행위로 규정하고 형법 115조 소요죄를 적용하여 129명을 구속하고 60여명을 지명 수배하였다. 수배자 중에는 장기포, 박계동 등 민통련 관계자들과 이호용, 이우재 등 인사인 관계자 그리고 양승조 등 인천지역노동자연맹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5·3 시위를 이용하여 민주화운동 단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들었다.

이 과정에서 선두환 정권은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인하대생 이용주는 고문에 못 이겨 민정당 지구당사를 자신이 방화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과 7일 부천경찰서(서장 옥봉환) 문귀동은 5·3 인천항쟁 관련 수배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여학생 권인숙양을 발가벗겨 성고문하는 천인공노할 민행을 저질렀다.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을 듯했으나 전두환 정권은 부인으로 인관하였고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전국의 교도소는 민주회를 외치다 구속된 사람들로 초만원이 이었다.



85년 8월 3일 주안 시민회관 앞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시민



## 마침내 6월항쟁으로

군사쿠테타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진두환 일당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민주세력의 투쟁은 선두환 정권의 포진 탄압에도 결코 꺾일 줄 모른다. 86년 내내 진두환 정권과 민주세력간의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되었다. 86년 10월 31일에는 "전국민의제반독재에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위하여 건국대에 모인 학생들을 경찰이 쫓아 잡기까지 동원해 진압하고 그중 1,27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선두환 정권의 단말마적인 발악은 끝이 없었다.

1987년 1월 14일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평소 고문으로 악명이 높던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본부장 강민창) 대공수사본실에서 서울대학교생 박종철군을 물고문해 죽인 것이다. 더욱 기증스러운 것은 경찰이 박종철군의 사망에 대해 해명하기를 조사를 위해 수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까 었" 하고 심장 소크사로 죽었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용기있는 한 의사의 증언으로 박종철군의 사망이 물고문에 의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환화신처럼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두환 정권은 끝내 회개할 줄을 몰랐다. 87년 4월 13일 선두환은 다음 대통령을 또 세육관에서 간접선거로 치르겠다고 발표하였다.

87년 6월 10일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노태우가 진두환과 함께 청와대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박종철 고분신인 은폐조각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후 6월 내내 진두환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시위는 이제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노동자, 농민, 베타이를 맨 직장인,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층미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는 국민의 대통령 직신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반환된 것이다.



87년 6월 서울 명동성당 일대 모인 시민들

## 완성되지 않은 과제, 5·3 인천항쟁의 정신

1986년 5월 3일에 벌어진 인천항쟁은 80년 5월에 펼쳐졌던 광주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였을 뿐 아니라, 다분히 반정부운동의 차원에 머물고 있던 80년대 운동이, 반파쇼 민주화 운동, 반외세 지구화 운동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었다.

보수야당의 시각에서 보면 5·3 항쟁은 운동권의 과격한 시위로 인해 신민당이 주도하고 있던 개헌추진지구 결성대회를 '무산시킨 사건'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보수야당은 광주민중항쟁을 학살로 진압하고 유신독재를 인정하고 있던 군부독재정권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민주개혁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 5·3항쟁은 노동자와 학생을 비롯한 민주 세력이 야당이 주도한 제도개선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압박한 시위운동이었다.

당시 군부정권이나 보수 인론은 5·3항쟁을 과거 불순 세력의 난동으로 매도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밑미로 삼았다. 실제로 일반시민의 정서와 거리가 먼 구호나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시위대의 공통된 주장은 '학살로 집권한 진두환 일당을 타도하지 않고 추진되는 제도개선은 국민적 수박에 없다는 것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만 절제된 민주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군부독재타도, 민주정부 수립으로 요약되는 당시의 주장은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87년 6월항쟁의 단명한 구호로 계승되었고,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시민운동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5·3 항쟁은 야당과 일부 세야세력의 타협적 개혁노선으로 분열된 민주화운동신성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5·3 항쟁은 결코 '무신된 운동'이 아니라 진정된 민주 개혁의 '출발점'이었다. 5·3 항쟁 이후 18년의 시간이 경과하



88년 11월 인천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

는 사이 한국의 민주화는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퇴진하고 민주주의적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사회의 곳곳에는 창산되지 못한 비민주적 요소들이 남아있으며, 우리의 의식내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주체의 각성을 촉구한 5·3항쟁의 정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

### 언론에 비친 5·3 인천항쟁

1948 5. 4

**격렬하다 총돌 市街 수리장**  
 市民黨 市街 衝突 激烈  
 市民黨 市街 衝突 激烈  
 市民黨 市街 衝突 激烈  
 市民黨 市街 衝突 激烈



市民黨 市街 衝突 激烈  
 市民黨 市街 衝突 激烈  
 市民黨 市街 衝突 激烈  
 市民黨 市街 衝突 激烈

1948 5. 8

**仁川시위 조종·주동 32명구급**  
 仁川市會 調控·主導 32名救急  
 仁川市會 調控·主導 32名救急

民統聯 간부·大學生 軍·로자 포함  
 民統聯 幹部·大學生 軍·로자 包含

한겨레 5. 20

**仁川시대 民民團·民統聯이 주도**  
 仁川時代 民民團·民統聯이 주도

자유일보 5. 20

**급진학생·과격在野가 騷擾유도**  
 急進學生·過格在野가 騷擾 유도

한겨레 5. 20

**仁川시대 民民團·民統聯이 주도 民衆봉기 誘發노려**  
 仁川時代 民民團·民統聯이 주도 民衆봉기 誘發노려

### 다시 가본 5·3 인천항쟁의 현장

다시 찾은 5·3항쟁의 현장이었던 시민회관 광장과 주민4거리 일대는 물리보게 변하였다. 한때 인천분회의 구심 역할을 했던 시민회관은 철거되어 사라졌으며 그 자리는 녹지광장으로 바뀌었다. 시민회관 광장이었던 자리에는 <옛시민회관 살터>라는 표지석이 서 있지만 이곳이 8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의 분수령 가운데 하나였던 5·3항쟁의 역사적 현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한때 주민 4거리 일대에는 80년대 인천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 인천민주화운동연합(인민연), 인천민중연합,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인문연) 같은 단체의 사무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다만 주민동성당만이 80년대 민주화운동과 5·3항쟁의 유일한 증언자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



인천시민회관이 있던 자리



5·3 인천항쟁의 증인, 주민동성당